

## “Dirty Cleans”: 조이스, 음란성, 그리고 검열

남 기 현

### 1.

한 사회가 가지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검열(censorship) 기능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음란성(obscurity)에 대한 검열은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항상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성적 표현에 대해 갖고 있는 허용의 한계는 사실 그 한계를 넘으려는 많은 시도에 의해 어겨지고, 재정립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대의 독자들에게 성적 묘사는 비교적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는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변화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 H. 로렌스(Lawrence)의 작품들의 음란성 논쟁과 더불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도 그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성적 표현에 대한 우리시대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성적 표현에 대한 증가된 관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도 성적 표현에 대한 검열과 규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더구나 최근에도 『율리시스』와 관련된 성적 표현의 수위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Throwaway Horse LCC라는 인터넷 업체가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만화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재하면서 인기를 얻어 애플사가 아이패드용 응용프로그램의 시판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면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1장에서 멀

리건(Mulligan)이 수영하는 장면에서 성기를 노출시켰다는 점을 들어 애플사가 수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F. 스콧 핏제랄드(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갯츠비』(*The Great Gatsby*)에서 갯츠비(Gatsby)가 몰락 한 후에 화자인 닉 캐러웨이(Nick Carraway)가 웅장한 저택의 계단에 쓰인 “음란한 단어”(the obscene word)를 신발로 지우는 장면이 연상되는 뉴스였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가 책상에 새겨진 단어 “Foetus”(P 89)를 자신의 마음의 질병의 흔적이라고 여기는 장면에서 음란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하지만 포르노그래피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담아 낸 성적 표현이 여전히 음란한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율리시스』의 검열과 판금의 과정을 점검하면서 조이스가 살았던 시대의 ‘음란성’에 대한 담론의 결도 어루만져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출판과 관련된 검열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현대 사회의 검열과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시간의 간극이 가져 올 수 있는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검열의 문제는 시대적 특수성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이스의 작품을 둘러싼 논쟁들이 아직 유효한 것이라 여겨진다. D. H. 로렌스(Lawrence)가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욕망에 대한 위선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과는 다르게 조이스는 음란성에 대한 사회적 장치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플로렌스 도어(Florence Dore)는 모더니즘 시기의 미국 작가들의 성적 표현은 빅토리아 시대의 ‘겸손함’(prudence)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일반적인 성적 본능에 대한 척도가 『율리시스』의 재판에서 재정립되었음을 지적한다(12). 따라서 『율리시스』의 음란성 논쟁과 재판과정에서 두드러진 문제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시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궁극적으로 검열은 과연 문학과 예술의 창의성과 어떤 관계로 남아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음란물로 판매금지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조이스는 오히려 그의 작품 곳곳에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이스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음란성의 유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선부른 답을 미리 한다면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모더니즘의 미학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정전(canon)의 반열에 올라있는 『율리시스』가 당시에는 음란물로 취급받아서 텍스트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해서 보고자 했다는 사실은 음란성이 단순히 도덕적 준거에 의해 재단된다고 해서 작품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리처드 브라운(Richard Brown)은 조이스의 망명이 검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망명과 검열은 조이스의 마음속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152). 심지어 마이클 그로딘(Michael Groden)은 「싸이클롭스」(Cyclops)장에서의 스타일의 변화가 뉴욕에서의 검열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한다(34). 따라서 검열은 단순히 문학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조이스에게는 그가 추구하는 문학의 지향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조이스 작품의 음란성과 검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검열제도를 통해서 음란성을 보는 당시의 기준을 점검해 보는 일이다. 적어도 1922년 출판이후 1935년 랜덤하우스에서 재출판할 때까지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음란물로 여겨져 판금이 되었다는 점은 음란성에 대한 기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전이 되어버린 작품이 당시에는 왜 음란서적으로 규정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란물로 규정되어 규제되었던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두 번째는 조이스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서 음란성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작가의 의도(authorial intention)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조이스 스스로 음란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작품에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조이스는 자신의 시대의 성 담론을 성실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19세기 유럽은 성을 통제하는 “억압적 가설”(the repressive hypothesis)을 가지고 성 담론을 다루고 있었음을 지적한다(17-35). 푸코가 구분 짓는 “성과학”(Scientia sexualis)와 “성애술”(ars erotica)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시점에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위치하고 있다. 조이스는 『율리시스』를 통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성에 대한 억압적 가설을 점검해 보고 새로운 시대의 성 담론을 담아내려 했다.

조이스의 성적 취향에 대한 평가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작가의 의도에 대한 전제를 점검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전기적인 기록들을 보면 조이스의 성적 취향이 흔히 ‘도착적’(perverse)이라고 여겨질 일화들이 많다. 1904년에 마텔로 타워(Martello Tower)에서 세인트 존 고가티(St. John Gogarty)와 지내던 시절의 에피소드에서 조이스의 성적 취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어느 날 고가티와 함께 조지 러셀(George Russell)이 주도하던 신비주의 모임인 밀교 협회

(the Hermetic Society) 사무실에 놀러간 두 사람은 조지 로버츠(George Roberts)의 가방에서 여성 속옷을 꺼내서 중간에 빗자루를 꽂아 두고, 존 에그린튼(John Eglington)의 이름을 써 놓은 메모지를 남겨 두는 장난을 쳤다. 이에 대해 러셀은 조이스가 혼자서 이러한 음란한 장난을 친 것으로 여겼다(Ellmann, 1982 174). 이 일화는 러셀에게 있어서 조이스와 성적인 장난이 쉽게 연결 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다른 예를 들면, 조이스가 1919년 4월에 성 레거(St Leger) 남작부인의 소문을 듣고 그녀를 만나러 갔다. 남작부인은 당시에 ‘사이렌’ 혹은 ‘씨시’로 불리던 인물 이었고, 자신의 성에 오디세이의 장면들을 인형으로 장식해 놓았다는 사실이 조이스의 관심을 끌었다. 조이스가 그녀의 성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성애적 도착에 관한 책들과 음란한 편지들이 가득한 방으로 안내했고, 조이스에게 그것들을 가지라고 권했다. 이에 조이스는 무척 즐거워했고, 그녀의 얘기를 흥미롭게 들었다고 한다(Ellmann, 1982 456-57). 이는 조이스가 성애적 도착에 관심이 있었음이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이다.

더구나 조이스와 노라(Nora)의 사적인 편지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유명하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이스의 성적 취향이 독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도록 만든 결정적인 단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적인 관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이스가 성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편지를 주목해 볼 만하다.

우리 시대에서 아일랜드 출신으로 내가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인가? 『원페인』지는 여전히 ‘성병’에 대해 떠들고 있지. 내 의견은 내가 만약 내 영혼의 우물, 즉 성 영역에 양동이를 내리면, 내 물과 함께 그리피스, 입센, 스켄피톤, 그리고 버나드 본, 그리고 성 알로이시우스, 그리고 셸리, 레낭의 물도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소설에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던 그림자와 본질 앞에 양동이를 내려놓고 그들이 좋아하는지 아닌지 보고자 한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사람들이 순수한 남자와 순수한 여자, 영적인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껄이는 것이 역겹다: 진실 앞에서도 격한 거짓을...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을 하수구라 생각한다: 그러나, 깨끗함이 이 문제에서 중요하다면, 아일랜드는 어떤가? (SL 129)

위의 편지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조이스는 자신이 성에 대

해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순수함, 영적인 사랑, 혹은 영원한 사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하면, 성과 몸이 배제된 순수한 영혼의 결합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들제는 조이스가 거명한 인물들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아일랜드 정치개혁가인 아더 그리피스(Arthur Griffith), 문학적 혁신가인 입센, 그리고 사회 개혁가이며 친구인 스캔피톤, 급진적 낭만주의 시인인 웰리, 기독교에 비판적이었던 에네스트 레낭(Ernest Renan)도 공통적으로 혁신적인 인물들이다. 특히 레낭은 예수의 생애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여 조이스에게 영향을 미쳤다(Brown 130). 심지어 성적인 관심과는 무관할 것 같은 종교적 인물들도 언급을 하고 있다. 버나드 보온(Bernard Vaughan)은 예수회 성직자이며, 성인 알로이시우스(St Aloysius)는 역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감염되어 1591년에 23살의 나이에 요절했고, 18세기 초에 ‘젊은이의 수호성인’으로 추대된 예수회 성직자이다(Schork 148). 이 성직자들도 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조이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의 순수주의(purism)에 대해 거부감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아더 그리피스가 주도하는 민족주의 운동의 기관지인 『선페인』(*Sinn Fein*)에서 강조하는 순혈적 민족주의가 제국주의 영국의 ‘순결운동’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울리시스』에서도 영국 주둔군이 도시의 거리에서 창녀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선페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밤에 오코넬 거리에서 그녀들을 쫓아 내자는 모드 끈의 편지: 성병에 찌든 군대: 해외 또는 반해외 제국”(U 5.70-72). 영국 주둔군에 퍼져있는 성병에 대해 공격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영국의 제국주의가 강조하는 순결성(purity)과 위생(hygiene) 담론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이스는 영국의 순수함에 대한 강박의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성에 대해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울리시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란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이스가 음란성을 포용한 것은 개인적인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음란물인 포르노그래피-음란소설과 성애적 그림엽서-의 등장으로 초래된 성 담론의 변화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의 작품이 음란물에 관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시대의 성 담론을 다루는 좋은 기회였고, 조이스 자신의 미학적 전략도 펼쳐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 2.

조이스가 1918년부터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의 주선으로 미국의 『리틀 리뷰』(*The Little Review*)에 『율리시스』연재를 시작하였는데, 조이스의 대담한 성적 표현을 비난하는 독자의 편지가 쇄도하였고, 이 편지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마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리틀 리뷰』지의 편집장이었던 마가렛 앤더슨(Margaret Anderson)의 반응을 보면 일반 독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나는 이 잡지가 지금까지 출판된 신문을 더럽힌 가장 저주받을 오물과 더러움이라고 생각한다...내가 얼마나 역겨운지 모호하게라도 표현할 말이 없다; 그의 유출물의 진창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취 나는 마음을 가져서 감히 세상을 더럽힐 정도의 인간 마음의 더러움과 쓰레기를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하거나, 더구나 어린 마음에 전달될 수도 있는 수단인 출판을 통해서. 이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니! (Vanderham 1 재인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적인 문제로 변진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앤더슨의 청소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본인의 홍보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앤더슨이 불안정한 구독자수로 인해 겪고 있던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구독자 확보 차원에서 무작위로 배포한 이 잡지의 7-8월호가 뉴욕의 한 변호사의 미성년인 딸에게 배달되었고, 하필 그녀의 아버지가 ‘악의 억제’를 위한 뉴욕 협회(the New York Society for the Suppression of Vice)의 사무총장인 앤소니 콕스탁(Anthony Compstock)이었다. 따라서 콕스탁은 이 잡지사를 음란물 배포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결국 담당 검사가 콕스탁의 대리인인 존 썸너(John Sumner)를 원고로 소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잡지사측 변호를 맡았던 존 퀴인(John Quinn)은 전문가들의 증언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판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만 놓고 음란성을 판단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불리하다고 인정을 함으로써 퀴도 『율리시스』의 음란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 되었다(Kelly 87). 결국 콕스탁이 주도했던 ‘악의 억제’를 위한 뉴욕 협회라는 단체가 표방한 도덕률은 『율리시스』의 배포금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단체가 표방한 성의 통제는 법률적 의미를 넘어 그 시대의 성 도덕과 표현의 문제를 함께

아우르고 있다. 콤스탁은 자신의 사명을 음란한 문학이나 사진들을 접근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신앙심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인기가 있던 ‘열푼짜리 소설’(dime novel)을 ‘어린이에 대한 악마의 덫’(devil-traps for the young)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Haney 20). 콤스탁과 『리틀 리뷰』의 편집장 사이의 갈등은 바로 “빅토리아의 예법과 현대적 솔직함 사이의 충돌”이었다(Vanderham 38).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콤스탁이 주도하던 단체가 1802년 영국에서 창설된 ‘악의 억압을 위한 단체’(the Society of the Suppression of Vice)를 계승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단체는 “성적 악”(sexual vice) - 음란물과 매춘 - 을 척결하는데 몰입했으며, 1880년대에는 이러한 운동의 연장선에 “사회 순결 운동”(social purity movement)이 일어났다(Schwarze 99). 조이스가 미국에서 직면한 음란성의 논쟁이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문학이 도전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성 담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조이스는 자신의 성적 솔직함을 담아 낸 『율리시스』를 통해서 불결함과 악 사이의 순환적 연결을 끊으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율리시스』는 바로 빅토리아 시대의 성도덕의 이중성에 대한 반란이며, 인간의 성에 대한 솔직한 접근임을 증명하고자한 시도였다.

1933년 12월 6일 “미합중국 대 『율리시스』라는 책”(United States vs One Book Called Ulysses)이라는 재판에서 울시 판사(Judge Woolsey)의 판결문은 영어권에서 최초로 『율리시스』에 대한 판금조치를 해제하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울시 판사의 판결은 많은 조이스 학자들, 법사학자들, 문화사가들로부터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과 이듬해 순회재판 2차 항소심(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의 승인 이후 랜덤하우스는 1935년에 미국에서 『율리시스』를 다시 출판하게 되었다. 재판에서의 법적 논란과 이 재판의 결정문은 미국의 음란물 규제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울시 판사가 『율리시스』를 음란물의 불명예에서 구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의 경계적인 역할을 의식했던 것 같다. 모리스 어네스트(Morris Ernest)의 변호가 울시 판사의 문학과 음란물의 구분을 확실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명했다. 울시 판사의 결정문은 『율리시스』의 음란성 비난에서 구제해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사항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판사의 결정문에서 음란성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된 기준은 다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작가의 의도(authorial intention)의 문제이다. 울시 판사는 조이스의 의도를 전제로 하면서, 다른 음란물들의 목적성과 차별화하는 입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시대의 지인들에게 조이스는 평범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율리시스』는 조이스 개인의 성에 대한 생각만 담아낸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경험한 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사회의 담론을 포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의 측면에서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선 것이라고 봐야한다.

둘째는 예술과 포르노그래피의 선명한 구분이다. 판사의 결정문이 『율리시스』를 포르노그래피와 문학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종결지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 조이스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상황을 파악한 듯하다. 왜냐하면 조이스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20세기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성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각성시키고자 했다. 『율리시스』에서 가장 중심적인 대중문화 산물은 다름 아닌 포르노그래피이다(Fiedler 30). 조이스가 인식한 포르노그래피의 위상은 상품문화(commodity culture)의 등장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진지한 문학의 위치를 위협할 정도로 지배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에 등장한 사진술은 회화의 경쟁자로 등장했지만, 더 나아가 포르노그래피가 사진술을 채택하여 소설의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사실적인 묘사의 측면에서 소설은 사진술을 채택한 포르노그래피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포르노그래피는 이미 계급의 경계를 가리지 않을 만큼 대량생산되는 문화 산물이 된 것이다(Pease 52). ‘성애적 엽서’(erotic postcards)들이 전환기에 유행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Leonard 651). 조이스는 자신의 문학 속에 이러한 성 담론의 변화를 담으려 했으며, 그가 포착한 20세기는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균적인 성적 본능을 가진 사람’(l'homme moyen sensuel)이라는 기준이다. 레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이 조이스가 인식한 성 담론의 변화를 읽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이스는 포르노그래피와 문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블룸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성 담론이 지배적인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조이스는 블룸의 성적 취향을 ‘변태적’(perverse)이라 규정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를 그려내려고 한 것이다. 그는 주인



공 불륜의 성적 취향을 통해 ‘도착’(perversity)에 대해서도 독자가 다른 입장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을 순수한 문학의 영역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조이스가 선택한 전략은 재판에서의 변호를 위한 전략과 다르다. 그런 경계를 나누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시대가 왔음을 깨닫고, 자신의 작품에 당시 유행하던 포르노그래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성에 대한 위선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성 담론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었다.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 자신의 문학의 근간임을 나타내고자 과감한 성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연재물이 음란물로 판결되어 판매금지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문학은 성적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포르노그래피가 『울리시스』 곳곳에 편재되어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불륜이 거리 책방에서 산 『달콤한 죄』(*Sweets of Sin*)는 분명히 포르노그래피에 속하는 책이다. 또한 침실에 걸려 있는 <목욕하는 요정>(The Bath of the Nymph) 포스터도 『포토 비트즈』(*Photo-Bits*)의 부활절 기념호에 실렸던 사진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오히려 조이스는 당시 영국의 포르노그래피 잡지인 『포토 비트즈』에 대한 적대적 상황을 우려했다(Mullin, 2003 172). 조이스는 포르노그래피와 문학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새로 부상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특성을 수용하면서, 필연적으로 포르노그래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작품에서 수용하고 있고, 그의 미학적 선택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음란성으로 문제가 되었던 연재분은 「노시카」(*Nausicaa*)장이었다. 『울리시스』가 ‘어린 마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근거로 악의 억제를 위한 뉴욕 협회가 잡지 배포금지 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부분이다. 「노시카」장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주인공 거티(*Gerty*)가 1890년대 빅토리아 여성 소설가를 대표하는 마리아 커민스(*Maria Cummins*)의 『가로등 점등원』(*The Lamplighter*)의 여자 주인공과 이름이 같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전반부의 스타일 자체도 순회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볼 수 있는 종류의 책들 같은 통속적 스타일이라는 점은 조이스가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성에 대한 공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데클란 카이버드(*Declan Kiberd*)는 12장의 아일랜드 문화운동의 남성성에 대중문화의

여성적 특성을 대비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194). 「노시카」장에서는 거티가 대변하는 “여성적 순정주의 문학”과 블룸이 대변하는 “남성적 저급문학”의 만남이라는 점이 흥미롭다(Fiedler 34). 더구나 블룸의 관음증(voyeurism)에 이어진 불꽃놀이와 함께 자위행위로 마무리는 된다는 것은 문학의 중심이동을 자축하고 있는 것이다. 해변의 성당에서는 남성을 위한 피정이 진행되고 있고, 해변의 소녀들은 ‘사랑스런 바닷가 소녀들’(Those Lovely Seaside Girls)에서 성적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성스러움과 성적인 것이 결합되면서, 거티가 대표하는 감성적 낭만소설의 전통이 전복되어, 블룸의 관음증 안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티가 가톨릭의 여성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블룸의 자위(masturbation)는 의도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위는 성경의 오난(Onan)의 일화를 통해서 가톨릭에서 비생산적인 성행위로 간주되어 죄로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Brown 55). 물론 거티의 반응이 블룸의 복화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녀가 구독하는 잡지들에서 생산된 로맨스는 분명히 조이스가 거부하는 성이 빠진 순수한 사랑에 불과하다. 거티가 일어나서 절름거리는 장면은 이러한 환상을 깨는 가장 가혹한 현실의 기표이다. 조이스는 13장 이전에 이미 곳곳에 포르노그래피 소설과 성애적 사진엽서들 같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현상을 배치해 두고 있다.

1장에서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는 바다를 보면서 알게는 찰스 스윈번(Algenon Charles Swinburne)의 시, “시간의 승리”(The Triumph of Time)에서 표현한 “위대하고 달콤한 어머니”(U 1.77-78)를 언급한다. 스윈번에 대한 언급은 바다와 모성을 연결 지으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가 실렸던 시집인 『시와 발라드』(Poems and Ballads)에 관한 논란을 조이스가 몰랐을 리가 없다. 스윈번의 친구인 테오도르 왓츠-던톤(Theodore Watts-Dunton)은 스윈번의 풍경시(landscape poems)는 옹호했지만, 그가 쓴 소설의 음란성에 반대하여 출판을 저지했던 인물이다. 고가티에게 조이스는 스윈번에게 왓츠-던톤 같은 역할이었다는 엘먼의 지적은 스윈번에 관해서 조이스가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982 173). 스윈번은 수정요구를 거절하고 당시 포르노그래피 출판업자로 유명한 존 캠던 호튼(John Camden Hotten)을 통해서 자신의 시집을 출판하였다(Pease 38). 더구나 이 시집의 음란성 때문에 당시에 촉망받던 젊은 시인이었던 스윈번은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표현의 잣대에 의해 문화계에서 추방되게 되었다. 또한 『태틀러』(the Tatler)라는

잡지에 연재되었다가 1905년에 수정 출판된 『사랑의 교류』(*Love's Cross-Currents: A Year's Letters*)는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소설이었다. 물론 스윈번의 보어 전쟁 당시의 영국 수용소에 관한 찬성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도 주목해야 한다(Mullin, 2006 121).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동성애와 관련된 재판을 염두에 둔 점을 생각할 때, 스윈번에 대한 언급은 그의 문학의 음란성에 대한 논쟁을 조이스가 간접적으로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스윈번에 관한 언급은 9장에서 벽 멀리건이 블룸을 가리키며 말하는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오, 두려워라, 그는 그리스인들보다 더 그리스적이야, 그의 창백한 갈릴리인의 눈이 그녀의 음부를 바라보고 있었지. 아름다운 뒤탈 비너스. 오, 저 사타구니의 천둥! 숨어 있는 처녀를 쫓는 산”(U 9.614-17). 창백한 갈릴리인에 관한 언급이 바로 스윈번의 시에 관한 언급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스윈번의 시 ‘프로세피네에 바치는 시’(Hymn to Proserpine)와 그리스 비극을 모형으로 한 희곡 「칼리돈의 아탈란타」(*Atalanta in Calydon*)는 둘 다 희랍의 정신에 대한 애호를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멀리건을 통해서 스윈번의 희랍정신의 애호는 동성애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블룸이 박물관에서 그리스의 여신상의 아래 부분을 확인하려는 호기심에 찬 행동을 목격한 멀리건의 지적은 고전 예술의 가치와 포르노그래피적 상상력의 충돌을 보여주는 예이다. 희랍의 여신상의 아래 부분을 관찰하고 싶은 블룸의 호기심은 단순히 성적 관음증이 아니다: “그녀를 연주하지. 입술로 불고. 백인 여자의 몸, 살아 있는 플루트. 부드럽게 불어야지. 큰 소리. 세 구멍, 모든 여자가 그렇지. 그걸 보지 못했네”(U 11.1088-90). 블룸은 보일란과 몰리의 성적 관계를 연주자와 악기의 비유로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리스 여신상의 하체를 살펴보지 못한 것을 떠올린다. 희랍의 고전예술이 여신의 나체를 미의 표본으로 삼았다면, 블룸이 탐닉하는 대중문화의 한 부분인 포르노그래피는 지나칠 정도의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는 대조를 보여준다. 묘사가 사실적이어야 한다면 모든 여성이 갖고 있는 세 개의 구멍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블룸의 사고방식이다. 이는 포르노그래피와 비교했을 때, 고전예술은 사실적이지 못 하며, 그리스 예술의 가치를 존중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 또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연주의적일 만큼 묘사에 치밀한 조이스에게 있어서 희랍 조각품이 성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술적 위선이라는 점을 블룸의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술적 표현의 자기 검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음란성에 대한 법적 논란은 「노시카」에 집중되어 있지만, 블룸과 폴리의 성적 취향을 보여주는 요소들은 이미 「칼립소」(Calypso)에서부터 드러난다.

그는 때 묻은 페이지를 넘겼다. <루비: 곡예단의 자랑거리>. 어라. 삽화다. 회초리를 든 험악한 이탈리아인. 루비는 틀림없이 자랑거리. 바닥 위에 나체로. 친절하게도 내어준 시트. 괴물 마페이는 저주의 말과 함께 그의 희생자를 단념하고 핑개쳤다. 온통 그 뒤에는 잔인함이. 흥분제를 먹인 동물들. 행글러 서커스단의 그네.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려야만 했다. 입을 딱 벌린 군중들. 목이라도 부러지면 모두들 포복절도할 거야. 가족 같은 그들. 뼈가 여린 어릴 때 단련시켜서 그들은 몸을 변화(윤회)시키는 거지. 우리가 사후에도 산다는 것. 우리들의 영혼. 죽은 다름의 인간의 영혼. 디그넬의 영혼... (U 4.345-53)

블룸은 폴리가 읽고 있는 소설을 뒤적이다. 서커스단의 단장이 루비라는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그려진 삽화(illustration)에 주목한다. 삽화와 사진은 포르노그래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메리 파워(Mary Power)에 따르면, 탈봇 휴즈(Talbot Hughes)라는 삽화가에 의해 묘사된 장면을 보면 에이미 리드(Amy Reade)의 소설을 조이스가 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15). 소설에서는 루비가 아닌 친구가 단장에게 채찍을 맞는 장면의 삽화이긴 하지만, 천으로 몸을 가린 반나의 여성이 바닥에 있는 장면의 묘사가 흡사하다. 조이스는 이 소설의 저자로 폴드 콕 (Paul de Kock)이라는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의 이름을 빌려 왔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폴리는 독백에서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한다: “나는 그가 자신의 물건을 이 여자 저 여자에게 휘두르고 다녀서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라고 생각해”(U 18.968-69). 블룸도 하루 종일 그의 이름을 떠 올린다: “폴 드 콕에 대해서. 좋은 이름이야”(U 11.500-1); “누군가 문들 두드렸다. 누군가 탁탁, 노크를 했다. 폴 드 콕이 노크했다. 큰 소리로, 당당하게 울리는 노크로, 콕 카카라카라 콕, 콕콕, 탁탁”(U 11.986-88). 또한 그의 이름은 “블룸의 거시기”(Poldy Cock)를 연상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조이스가 <루비: 곡예단의 자랑거리>의 작가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킨 것이 틀림없다. 이 소설과 더불어 『율리시스』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 소설이 하나 더 있다.

「방황하는 바위들」(The Wandering Rocks)에서 블룸은 거리의 책방에서 『달콤한 죄』(Sweets of Sin)라는 포르노그래피 소설을 뒤적이다. 블룸은 눈에 띈 부분을

자세한 묘사에 흥미를 갖고 읽어 본다.

그는 다른 책 제목을 읽었다: 달콤한 죄. 아내의 취향에 더 맞겠군. 어디 좀 보자.

그는 손가락이 펼치는 곳을 읽었다.

- 남편이 그녀에게 준 모든 달려 화폐는 멋진 가운과 가장 값비싼 화려한 속옷을 사느라 옷가게에서 다 써버렸다. 그이를 위해! 라울을 위해!

그래. 이걸 사자. 여기. 읽어보자.

- 그녀의 입은 달콤하고 육감적인 키스로 그의 입과 붙고 한편 그의 양손은 그녀의 속옷 속에 감싸인 풍만한 곡선을 더듬었다.

그래. 이걸 사자. 결말은. (U 10.606-13)

블룸이 책의 한 페이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읽는 것은 ‘sortes Biblicae’라는 관습으로 임의적으로 펼친 페이지를 일종의 예언적 의미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Gifford 272). 절묘하게 성스러움과 성적인 것이 충돌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블룸의 시선을 끈 “라울을 위해”(For Raoul!)라는 구절은 성적 표현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여성의 등장을 의미하며, 블룸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변주되는 페티시즘(fetishism)과도 연결된다. 또한 블룸이 눈여겨 본 책들은 모두 유사 포르노그래피에 속한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 『마리아 몽크의 끔직한 폭로』(The Awful Disclosures of Maria Monk)는 몬트리얼의 수녀원에 일어났던 사건을 수기 형식으로 쓴 작품이며, 성직자들의 성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찰스 치니퀴(Charles P. T. Chiniquy)의 저서들 - 『신부, 여자, 그리고 고해소』(The Priest, the Woman, and the Confessional)(U 15.2548)와 『내가 로마 교회를 떠난 이유』(Why I Left the Church of Rome)(U 8.1070-71) - 도 교회의 성적 문란함을 고발한 내용이며, 포르노그래피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씨시」(Circe)에서 블룸의 아버지 비락(Virag)이 등장해서 치니퀴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조이스의 종교의 성적 타락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수도승들과 처녀들의 성의 비밀을 폭로한 비락이다. 내가 로마 교회를 떠난 이유. 신부, 여자, 그리고 고해소를 읽어봐. (U 15.2547-48)

블룸의 할아버지인 비락의 등장은 성 담론의 변화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비락은

성을 학문으로 성장시킨 성애학(sexology)에 관해 책을 쓰기도 했다. “나의 성애학의 기초 열일곱 번째 장을 봐라”(U 15.2423-24). 과학의 학문 분야로서 성장한 성에 관한 연구는 종교에서 성을 죄악시했던 것과 대조가 된다.

블룸이 뒤져 보던 책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걸작』(*Aristotle's Masterpiece*)도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과는 달리 해부학적인 내용들과 삽화들이 가득한 성과 출산에 관련된 책이다. 스티븐 수드(Stephen E. Soud)의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은 6개의 채색석판화와 10개의 목판 삽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한 의학 서적이 되기보다는 성 지침서에 가깝다(196). 「태양신의 황소들」(*the Oxen of the Sun*)에서는 삽화에 관한 설명과 함께 기형아 출산의 문제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채색석판화 삽화가 포함된 그의 걸작에서 분류한 인간 출산의 모든 경우들”(U 14.976-77). 「페넬로페」(*Penelope*)장에서 몰리가 블룸이 잠 든 모습을 보면서 이 서적의 삽화에서 묘사된 태아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율리시스』에는 이 책들 외에도 당시의 성 담론을 보여주는 책들에 관한 언급이 많다. 『아름다운 폭군들』(*Fair Tyrants*)은 체벌과 가학적 성(sadistic sexuality) 문화를 담고 있음을 몰리의 독백이 선명하게 보여준다. “아름다운 폭군들 남편이 두 번이나 가져왔지 내 기억으로는 50 페이지에 여자가 남자를 고리에 걸어 채찍으로 때리는 부분이 있지 거기에는 여자에 대한 배려는 없어”(U 18.493-96). 성적 쾌락의 추구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부당한 유리함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몰리는 역시 이 책을 언급한다. “아름다운 폭군들에서 아내에 대한 반대편의 광기의 극단에 이르기까지”(U 18.1395-96). 스티븐 와트(Stephen Watt)에 따르면, 실존 인물인 제임스 러브버치(James Lovebitch)는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체벌 문학’(flagellation literature)이라는 포르노그래피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였다(77). 조이스의 언어적 관심을 고려할 때, 러브버치의 이름은 채찍으로 사용되는 나무이름이며, 동시에 체벌기구인 막대기(rod)를 연상시킨다는 점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위에 언급된 『게토 이야기』(*Tales of the Ghetto*)의 저자인 레오폴드 자허-마조흐(Leopold Sacher-Masoch)의 다른 작품인 『모피를 입은 비너스』(*Venus in Fur*)는 블룸의 피학적(masochistic)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이 작품은 「씨시」장에서 베링햄 부인(Mrs. Bellingham)이 등장하여 블룸을 비난하는 장

면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된다.

그는 저의 두 다리라든지, 극한까지 당겨 신은 비단 양말 속의 부푼 장딴지를 거의 터무니없이 찬미하는가 하면, 그가 말하듯, 자신이 추측할 수 있다는 값비싼 레이스 속의 저의 다른 숨은 보물을 열렬히 찬미했어. 그는 제게 가능한 조속한 기회에 결혼의 침상을 더럽히고, 간통을 범하도록 (권유하는 것만이 그의 인생의 사명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권유했어. (U 15.1051-56)

블룸이 불륜을 부추겼다는 주장에서 신혼 침대를 더럽히라고 언급한 것도 성을 더러움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불륜은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믿음도 반영된 것이다. 대담한 성적인 표현을 더러움과 동일시하여 죄의식을 강화하였던 빅토리아 시대의 순결운동의 이데올로기로 블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포르노그래피들을 언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블룸의 성적 취향의 변태성을 드러내려는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 길거리의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의 위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적 환상을 제공하고, 상업문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성 담론이 일상의 삶 속으로 침투되었음을 조이스는 간파한 것이다. 이러한 포르노 소설보다 훨씬 강한 편재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진이나 그림들이다.

물리는 블룸이 잡지들을 쌓아 두고 있음을 불평한다: “내가 프리먼지(誌)와 포토 비트츠의 반을 태워서 좋아”(U 18.600-01). 민족주의를 표방한 잡지와 포르노그래피 잡지가 병치하여, 조이스는 블룸의 취향이 어느 한 편에 우위를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테스 마쉬(Tess Marsh)에 따르면, 『포토 비트츠』(Photo Bits)라는 잡지는 1898년 7월 9일부터 1914년 12월 9일까지 발간된 잡지이며, 1902년 2월부터 1909년 7월까지 이 잡지는 피학증(masochism)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다고 한다(878).

블룸의 사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침대 위에 걸려 있는 <목욕하는 요정>(The Bath of the Nymph)이다.

침대위의 <목욕하는 요정>. 『포토 비트츠』지의 부활절호 기념으로 받은 저지: 수채화의 멋진 걸작. 우유를 타기 전 홍차. 머리를 풀고 있는 아내와 다들 것도

없지. 더 낫겠하군. 사진들은 3실링 6페니를 주고 했지. 그녀는 침대 위에 걸어 두는 게 보기 좋을 거라고 말했지. 나체의 요정: 그리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 (U 4.369-73)

마쉬는 같은 제목의 부활절기념호에 실린 사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제목의 사진들을 조합해서 조이스가 제목을 지은 것이라고 추측한다(878).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05년 성탄절 기념호의 광고 문구를 조이스가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12색 판은 신문이나 대중들이 최고의 예술작품이라고 천명한다. 깔끔하게 액자를 하면, 어떤 그림 목록에 훌륭한 추가 항목이 된다. 침실에 걸어 두면, 따뜻하고 편안한 효과를 보인다. 아무 곳이나 걸어도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틀림없다. (Marsh 882 재인용)

침실에 걸어두면 눈을 즐겁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광고 문구는 이 사진을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씨시」에서 블룸은 요정을 “경배를 해야 할 정도의 미의 화신”(U 15.3268)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요정은 블룸의 성적 환상을 자극하는 현대판 핀업(pin-up) 사진에 불과하다. 「방황하는 바위들」에 등장하는 마리 켄달(Marie Kendall)의 포스터도 치마를 살짝 들어 성적 매력을 호소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는 마리 켄달의 커다란 포스터를 응시했다. 매력적인 여배우, 그리고, 힘없이 몸을 늘어뜨리면서, 메모지에 16과 대문자 S를 적었다. 겨자 빛 머리와 덩치덩치 분칠한 양볼. 저 여자는 그리 예쁘지는 않아, 그렇지? 스커트를 약간 치켜들고 있는 저 모양새. (U 10.380-83)

음악당(Music hall) 공연자였던 마리 켄달의 공연 포스터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을 상품화한 것은 상업문화에서는 이미 필연적인 광고 전략이었다.

<목욕하는 요정>을 배경으로 몰리가 윤희(metempsychosis)의 개념을 블룸에게 묻는 장면을 통해서 몰리가 현대판 요정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윤희의 개념을 『율리시스』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데, 단순히 불교적 개념이 아닌 폭넓은 의미에서의 재생의 주제와 연결 짓고 있다. 더구나 부활절 기념호로 배



부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재생의 주제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순수 누드’(pure nude)의 이념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장치일 뿐이다. 조이스는 블룸의 사진에 대한 관심과 딸 밀리(Milly)의 직업과 연결 지어 포르노그래피 산업에서 양산되는 욕망을 짚어내고 있다. 토마스 리차즈(Thomas Richards)는 휴양지 혹은 미용제품 광고에 자주 사용되던 ‘해변의 소녀’ 이미지가 거티에서 중첩된다고 지적한다(234). 밀리의 직업인 ‘포토 걸’(photo girl)은 ‘저 사랑스런 해변가의 소녀들’(Those Lovely Seaside Girls)이라는 노래와 더불어 상품 광고에서 등장하는 여성 모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거티와 친구들도 블룸의 성적 환상에서는 상품화된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요정은 「씨시」에 다시 등장하여 블룸의 성적 호기심을 자신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 요정

(그녀의 모습은 굳어지고, 옷의 접힌 부분을 더듬는다) 신성모독이야! 나의 순결을 범하려 하다니! (커다란 젖은 흔적이 그녀의 옷에 나타난다) 나의 순수함을 더럽히려 하다니! 당신은 순수한 여인의 옷을 건드리기엔 적절치 않소. (그녀는 다시 옷을 잡는다) 잠깐 기다리시오, 사탄,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부르지 않을 거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녀는 단도를 꺼내고, 9명 중에 선택된 기사의 보호갑옷을 입고, 그의 사타구니를 친다) 네쿰! (U 15.3455-61)

조이스는 희랍의 고전적 미와 대중적 미의 구분이 <목욕하는 요정>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정이 블룸에게 그의 욕망은 순결함을 범하려는 신성모독이라고 면박한다. 하지만 요정의 퇴장에서 그녀의 석고상의 깨어진 틈에서 악취를 풍기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녀의 석고 형상이 깨져서, 그 틈에서 악취의 연기가 빠져나오고 있다”(U 15.3469-70). 고전미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이 잘 드러나 있다.

「노시카」장에 등장하는 사진이 그려내는 로맨스는 <목욕하는 요정>이 대변하는 성적 욕망과 대조가 된다.

집의 벽에 걸어 놓은 사람은 거티였고, 그녀는 이주일 마다 잊지 않고 염소산으로 삼점주인 터니씨의 성탄절 연감인 평화로운 날들이라는 그림을 닦았는데, 거기엔 젊은 신사가 당시 주로 입었던 의상을 입고, 3각 모자를 쓰고, 그의

연인에게 그녀의 창문을 통해서 예스러운 기사도 방식으로 꽃 한 다발을 건네는 모습이 있었다. (U 13.332-37)

감상적인 로맨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을 통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조이스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랑이 결핍하고 있는 성적 욕망을 불륜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려 한다.

블룸의 음란 사진에 대한 관심은 과학적 문답으로 이루어진 「이타카」(Ithaca)장에서 서랍에 보관중인 물건들을 통해 제시 된다.

... 영국 주간지 현대 사회에서 오린 기사, 주제는 여학교에서의 체벌 .... 런던의 체어링 크로스가(街) 사서함 32번지에서 우편물로 구매한다 2 장의 성적 그림엽서, 하나는 (위에 있는 뒷모습을 보인) 나체의 여자와 (아래에 있는 앞모습을 보인) 나체의 남자 사이의 성교를 보여주는 사진과 (성장한, 시선은 아래로 둔) 남자 성직자에 의한 (부분만 입은, 시선을 보이는) 여자 성직자의 항문 성교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U 17.1801-02, 1809-13)

블룸이 오려 놓은 영국의 주간지 『현대사회』(Modern Society)에 실린 여학교에서의 체벌에 관한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체벌금지에 관한 내용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포르노그래피였다(Cotter 117). 또한 두 장의 음란 사진엽서를 간직하고 있는데, 블룸의 성적 호기심을 담백한 사실적 정보제공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의 성적 일탈을 통해서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도 보여준다.

또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던 장치들이 조이스가 살던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활동 영사기가 좋은 예이다.

카펠 거리에 있던 활동 영사기 사진들: 남성 전용. 훑쳐보는 톰. 윌리의 모자 그리고 소녀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다. 사진을 찍은 것일까 아니면 모두 가짜일까? 속옷도 같은 기능을 하지. 그녀의 속옷 안으로 곡선을 느꼈다. 그들도 흥분을 하지. 나는 온전히 깨끗해요. 와서 나를 더럽혀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희생제를 위해서 서로 옷을 입혀주는 것을 즐기지. (U 13.794-98)

활동 영사기인 무토스코프(Mutoscope)는 사진을 연결하여 보여주는 방식이라

동작이 매끄럽지 않지만, 내용은 주로 소녀들이 나체로 욕탕을 들락거리거나 화가의 누드모델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남성의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 불륨은 바로 『달콤한 죄』에서 읽었던 표현을 상기함으로써 복장도착(transvestism)에 의한 속옷의 페티시(fetish)적 기능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성적 쾌락은 결국 ‘더러움’과 연결 짓고 있어, 빅토리아 시대의 ‘순결 운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율리시스』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성적 일탈인 간통(adultery)과도 연결이 된다.

『율리시스』에서 가장 핵심적 사건은 사실상 몰리의 간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일랜드 독립을 주도했던 찰스 스투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의 몰락이 캐서린 오셰이(Katherine O’Shea)와의 간통사건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당시에 더블린 중심에 동상이 서 있던 넬슨(Nelson) 제독의 간통과 비교를 통해 이중적 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외팔이 간통자”(U 7.1019). 게다가 몰리와 보일란(Boylan)의 간통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의 일상에서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간통에 대한 모순적 태도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이 담겨져 있다. 특히 영국 국왕인 에드워드 7세도 이러한 비판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조이스는 그에게 더러움의 상징인 ‘오줌의 수호자’라는 별칭까지 붙여줬다: “그의 왼쪽 손에는 미장이의 물통이 들려있고, 거기엔 오줌의 수호자라고 새겨있다”(U 15.4456-57).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사회개혁의 핵심이었던 순결운동이 주장하는 ‘더러움’과 ‘순결함’의 이항대립적 성 담론은 에드워드 7세의 성적 문란함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되고 있다.

—음, J. J.가 말하길, 우리는 평화지킴이인 국왕 에드워드가 싫잖아.

—그런 것은 바보에게나 말해, 라고 시민이 말한다. 그 놈에게는 평화보다 열병할 장면이 더 많아. 구엘프-웨틴 에드워드.

—그리고 생각해봐, 조이가 말한다. 아일랜드의 신부와 주교들, 그 성스럽다는 인간들이 매이누스에 머물렀을 때 왕의 방을 그 악마 같은 폐하의 깃발로 장식했고, 그의 마부들이 뒹군 말들의 그림을 걸어 놓은 짓을 한 것을. 더블린 공자, 더도 덜도 아닌.

—그가 뒹군 여자들 그림도 걸어 놔야 하는데, 라고 작은 엘프가 말한다. (U 12.1399-1406)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자인 시민(the Citizen)은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독일 혈통을 비난하고, 조(Joe)는 에드워드 7세가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가톨릭 성직자

들이 환영의 의미로 영국 국왕이 댄던 딸들의 사진을 깃발로 만들었던 것을 비판하자, 앨프(Alf)는 에드워드 7세가 ‘댄던’ 여자들의 사진도 걸어야 한다면서 방탕한 생활을 비꼬고 있다. 파넬은 오셰이와의 간통사건으로 인해 가톨릭 성직자들의 지지를 잃게 되면서 몰락했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들이 타락한 에드워드 7세를 환영한 일은 모순된다는 점을 조이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귀족사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귀족부인들의 증언은 블룸의 피학적 성애(masochism)와 관음증을 비난한다. 몰리의 음란한 사진을 보여 준 일화는 그의 판타지의 일면을 드러낸다.

이 평민 돈환 녀석이 마차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뒤에 그는 어둠이 짙은 후에 파리의 가로에서 팔고 있는 것과 같은, 어느 부인에게나 모독을 주는, 외설적인 사진 한 장을 이중 봉투에 넣어 제게 보냈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분 나체의, 가냘프고 귀여운 아가씨(그가 단호하게 제게 확신시킨 바에 의하면, 그것은 그가 몸소 실물 그대로 찍은 그의 아내의 사진이라는 것이었어요)가 어떤 건장한 투우사, 분명히 부랑자인 사나이와 불의의 관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저도 그와 똑같이 해보라든지, 저더러 불의를 행하고, 수비대의 사관들과 죄를 범해 보도록 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의 편지를 말도 못 할 정도의 방법으로 저더러 더럽혀 줄 것을, 자신이 응당히 받아야 마땅한 벌을 그에게 가해 줄 것을, 그를 걸터앉아 달리게 해줄 것을, 가장 호된 말 매질을 그에게 해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U 15.1064-73)

블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편지를 더럽히라고 간청했다고 귀족 부인은 증언한다. 게다가 체적으로 때려달라고 하는 피학적 성애를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요청은 빅토리아 성 도덕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그가 보여 준 사진에서는 아내인 몰리가 성애적 사진엽서의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상의 세계인 「씨시」에서 몰리는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한 부분인 성애적 사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비난을 퍼붓던 귀족 부인들이 처형 장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엽기적일 정도로 반전을 이룬다.

조이스의 성적 표현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은 「씨시」장에서 로버트 에밋의 처형을 연상시키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 까까머리 소년

허 허머니의 한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도다.

(그는 숨을 거둔다. 그 교수된 자의 급격한 발기가 수의를 뚫고 솟구쳐 길 위에 뿌려진다. 벨링엄 부인, 앨버트 배리 부인 그리고 머빈 텔보이즈 각하 부인이 앞으로 달려 나가 손수건으로 그것을 적셔 훔친다.) (U 15.4546-52)

교수형에 처한 남성의 경우에 경부가 눌러 성기가 발기가 되고, 심지어 사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사실을 토대로 로버트 에밋(Robert Emmet)의 처형이 초래한 정치적 신성시를 비판하고 있다. 이미 『사이렌』장의 마지막에서 로버트 에밋의 유명한 연설이 불륜의 방귀소리에 묻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면에서 성 담론과 정치담론이 충돌하며, 성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이스의 강력한 논쟁적 관점을 드러내 보여준다.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잡지인 『윈페인』에서 강조했던 순수주의를 비판했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이스는 음란성(obscenity)을 인간의 욕망의 자연스런, 억압받지 않는 표출로 간주한 것 같다. 귀족부인들은 “식민주의 권력의 여성적 표상”(Doherty 225)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이스는 그 권력의 불모성(sterility)을 반역자의 정액이 상징하는 남성적 힘을 통해 보충시키려는 상황은 비판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이스의 비판은 영국 제국주의의 불모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798년 혁명을 다룬 민요인 “까까머리 소년”(The Croppy Boy)이 전투적 민족주의 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로버트 에밋의 처형과 중첩됨으로써 에밋의 교수형이후 참형까지 행한 영국 제국주의의 잔인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손수건에 그의 피를 묻히려 했던 집단적 의식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de Sola Rodstein 159).

조이스가 『리틀 리뷰』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받아 수정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불륜의 성적 성향에 대한 재판 장면이다(Weir 401). 이 장면에서 복음주의자인 알렉산더 J 도위(Alexander J. Dowie)가 등장하여 불륜을 음탕한 인물로 규탄한다.

## 알렉산더 J. 도위

(격하게) 친애하는 기독교도들이며 반불륜주의자들이여, 불륜이라 부르는 이 자는 지옥의 뿌리에서 나온 기독교들에게는 수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탕한 악마이며, 덴데스의 냄새나는 염소인 자로 평지의 도시들을 연상시키는 소

아직 성적 방탕의 조속한 징조들을 보였습니다. 불명예로운 일로 뻘뻘해진 이 비열한 위선자는 게시록에서 언급한 흰 황소입니다. 진홍색 여성의 숭배자로 기만이 그의 콧구멍의 숨인 자요. 그에게 화형 장작과 끓는 기름의 단지의 벌을 내립시다. 켈러번! (U 15.1752-60)

성경에 근거를 둔 복음주의자의 비난은 블룸을 켈러번으로 부르며 끝난다. 이런 비난에 대해 성 전문의인 말라기 멀리건(Dr Malachi Mulligan, sex specialist, U 15.1772)이 등장하여 블룸을 변호해 준다. 멀리건은 처음 등장부터 외설적인 모습이 강한 인물이었으며, “웃기는 예수의 노래”(The Ballad of Joking Jesus)나 음란한 희곡을 쓴 인물이다. 그의 진단은 블룸이 “새로운 여성적 남성”(the new womanly man, U 15.1798-99)임을 천명한다.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상극의 형태 속에서 블룸의 성적 정체성도 유전에 의한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를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유전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켈러번으로 규정하려는 영국의 식민주의 담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린치(Lynch)의 입을 빌어 포르노그래피의 위상을 짚어내고 있다: “포르노사교적 신애학”(Pornosophical philotheology, U 15.109). 두 단어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조합을 하면, 일반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철학적인(philosophical), 포르노(porno[graphy]), 그리고 신학(theology). 『율리시스』는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와 종교(theology)에 대한 철학적(philosophical) 고찰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즉, 성스러움(the sacred)과 성적인 것(the sexual)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을 간파한 조이스의 통찰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3.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첫 이야기에서부터 신부의 죽음이 성적 타락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율리시스』가 음란성의 논의에 휩싸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로마가톨릭의 성 담론이 지배하는 아일랜드에서 고해소에서 광기에 사로잡힌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것 자체가 대단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조이스는 가톨릭 사회의 성의 억압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자신이 표방하는 문학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망명을 택했다. 하지만 조이스의 문학적 실험들도 유럽 및 미국사회에서 초차 여전히 너무 과격한 것들이었다. 조이스는 자신을 향한 검열의 연합세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7년 동안 나는 이 책을 써 왔다—제기랄! 어떤 영국 인쇄업자도 한 글자도 인쇄하길 원치 않았다. 미국에서는 서평도 네 번이다 거절당했다. 내가 듣기로, 청교도들, 영국 제국주의자들, 아일랜드 공화파들, 가톨릭교도들이 시작한 이 책의 출판을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이 준비 중이라고 한다—이런 연합이! 저런,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하겠다. (*Letters* 1 145)

여기서 조이스는 이질적인 집단이지만, 출판에 대한 검열의 문제에서는 공통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청교도, 영국 제국주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 가톨릭이 모두 검열에 참여하여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농담하고 있다.

브랜던 커쉬너(R. Brandon Kershner)는 조이스의 특성을 요약하면서, 두 문화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이스가 20세기의 저속하고 자연주의적인 곁에 고전적인 모태를 부여한 것, 일상적인 상품들이 가득 찬 소설의 전반에 고급문화의 언급들을 흩어 놓은 것의 의미는 우리가 둘을 다시는 분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천명에 불과하다. (40)

세속적이고, 자연주의적 곁 위에 고전적인 모태를 얹힌 것이나 고급문화와 일상적인 상품으로 가득 찬 20세기의 모습을 그린 것이 두 가지 성향을 더 이상 해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에게 있어서 ‘음란성’이란 인간의 욕망의 일면이며,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도 모호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더구나 20세기는 인간의 욕망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표현이 가능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법적인 시련을 거쳐서 중요한 ‘정전’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자신의 분신격인 스티븐 디덜러스의 이름에서 이미 성적 이탈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흔히 간과한다. 이름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티븐 신부에서 빌려 왔고, 성은 오비드

(Ovid)의 『변신』(Metamorphosis)에 등장하는 다이달로스의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미노스(Minos) 왕의 아내인 패시페(Pasiphaë)에게 나무로 만든 소를 만들어줘서 성적 관계를 통해 괴물 미노타우어(Minotaur)를 낳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미로를 만들게 되는 신화를 감안한 것이다. 『태양신의 황소들』에서도 이 신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천재적인 훌륭한 로마 시인이 그의 변신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물려 준 미노타우어 같은 우화들”(U 14.994-96). 종교적 성스러움을 대표하는 순교자와 극단적 성적 타락의 신화가 스티븐 디덜러스의 이름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조이스가 성적 솔직함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판사 윌시가 『율리시스』를 음란물에서 해방시켜 준 근거의 하나인 일반적인 성적 본능을 가진 레오폴드 블룸의 성적 환상을 통해서 성적 일탈의 문화인 포르노그래피가 이미 일반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유입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가 목격한 20세기의 문화는 더 이상 성을 금기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고 탐닉하는 대중문화가 중심의 축이 되어 가던 시기였다는 인식이 『율리시스』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성적 표현에 대한 금기와 규제는 존재한다. 엘만의 비유를 빌자면,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현대의 성 담론의 웅벽을 공략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1977, 79)라고 할 수 있다. 블룸의 단편적인 생각을 통해 조이스는 지금까지 ‘음란함’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닐까?: “더러움이 깨끗하게 한다”(Dirty Cleans)(U 4.481).

(서울과학기술대)



## 인용문헌

- Arnold, Bruce. *The Scandal of Ulysses*. New York: St. Martin's, 1992.
- Boyer, Paul. *Purity in Print: The Vice-Society Movement and Book Censorship in America*.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68.
- Brown, Richard. *James Joyce and Sexuality*. Cambridge: Cambridge UP, 1985.
- Cotter, David. *James Joyce and the Perverse Ideal*. New York: Routledge, 2003.
- De Sola Rodstein, Susan. "Back to 1904: Joyce, Ireland, and Nationalism." *Joyce: Feminism/Post/Colonialism*. Ed. Ellen Carol Jones. Amsterdam: Rodopi, 1998. 145-85.
- Doherty, Gerald. "Imperialism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in James Joyce's *Ulysses*." *Joyce: Feminism/Post/Colonialism*. Ed. Ellen Carol Jones. Amsterdam: Rodopi, 1998. 207-29.
- Dore, Florence. *The Novel and the Obscene: Sexual Subjects in American Modernism*. Stanford: Stanford UP, 2005.
- Ellmann, Richard. *The Consciousness of Joyce*. Toronto and New York: Oxford UP, 1977.
- \_\_\_\_\_. *James Joyce*. Oxford: Oxford UP, 1982.
- Fiedler, Leslie, A. "To Whom Does Joyce Belong? *Ulysses* as Parody, Pop and Porn." *Light Rays: James Joyce and Modernism*. Ed. Heyward Ehrlich. New York: New Horizon, 1984. 26-37.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Vol. 1. New York: Vintage, 1990.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Rev. E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 Groden, Michael. '*Ulysses*' in *Progress*. Princeton: Princeton UP, 1977.
- Haney, Robert W. *Comstockery in America: Patterns of Censorship and Control*. New York: Da Capo Press, 1974.
- Joyce, James. *Ulysses*. New York: Random House, 1986.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1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1957.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75.
- Kelly, Joseph. *Our Joyce: From Outcast to Icon*. Austin: U of Texas Press, 1998.
- Kershner, R. Brandon. *The Cultures of Joyce's Ulysses*. New York: Palgrave, 2010.
- Kiberd, Declan. *Ulysses and Us: The Art of Everyday Life in Joyce's Masterpiece*. New York & London: W. W. Norton, 2009.
- Leonard, Garry. "Power, Pornography, and the Problem of Pleasure: The Semerotics of Desire and Commodity Culture in Joyce." *JJQ* 30.4/31.1 (Summer/Fall 1993): 615-665.
- Marsh, Tess. "Is There More to *Photo Bits* Than Meets the Eye?" *JJQ* 30.4/31.1 (Summer/Fall 1993): 877-93.
- Mullin, Katherine. *James Joyce, Sexuality and Social Purity*. Cambridge: Cambridge UP, 2003.
- \_\_\_\_\_. "English Vice and Irish Vigilance: The Nationality of Obscenity in *Ulysses*." *Joyce, Ireland, Britain*. Eds. Andrew Gibson and Len Platt.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2006. 68-82.
- Pease, Allison. *Modernism, Mass Culture, and the Aesthetics of Obscenity*. Cambridge UP, 2000.
- Power, Mary. "The Discovery of *Ruby*." *JJQ* 18(1981): 115-21.
- Richards, Thomas. *The Commodity Culture of Victorian England: Advertising and Spectacle, 1851-1914*. Stanford: Stanford UP, 1991.
- Schork, R. J. *Joyce and Hagiography: Saints Above!* Gainesville: U of Florida Press, 2000.
- Schwarze, Tracey Teets. *Joyce and the Victorians*. Gainesville: U of Florida Press, 2002.
- Soud, Stephen E. "Blood-Red Wombs and Monstrous Births: *Aristotle's Masterpiece* and *Ulysses*." *JJQ* 32.2 (Winter 1995): 195-208.
- Vanderham, Paul. *James Joyce and Censorship: The Trials of Ulyss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 Watt, Stephen. "'Nothing for a Woman in That': James Lovebitch and Masochistic

Fantasy in *Ulysses*.” *Joyce and Popular Culture*. Ed. R. B. Kershner.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6. 74-88.

Weir, David. “What Did He Know, and When Did He Know It: The *Little Review*, Joyce, and *Ulysses*.” *JJQ* 37.3/4 (Spring and Summer 2000): 389-412.

## Abstract

### “Dirty Cleans”: Joyce, Obscenity, and Censorship

Kiheon Nam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censorship in regard to Joyce’s *Ulysses*, not only in his time, but also in our time. The Throwaway Horse Project initiated a series of webcomic versions of Joyce’s *Ulysses*. It became so famous that the Apple company allowed the iPad version of this webcomic to be sold only if some part of the obscene descriptions were modified. In the end, the Apple company was forced to succumb to the protest.

The serialization of *Ulysses* in the *Little Review* through Ezra Pound was suppressed because of its obscene contents in America. The New York Society of the Suppression of Vice waged a crusade against obscene literature, which is supposed to smudge the innocent minds of the young. In 1935, Judge Woolsey’s decision salvaged Joyce’s *Ulysses* from being condemned as obscene. But it is true that Joyce must have intended to include obscene materials in his work. Why? The answer is: Joyce must have been aware of the dominance of pornography along in commodity culture.

Joyce’s inclusion of pornographic novels and erotic picture cards makes his work ‘obscene,’ which strategically undermines the edifice of Victorian discourses of purity and hygiene. Joyce tries to be honest about his sexual desire, which is embodied through a character, Leopold Bloom, whose sexual perversity is supposed to be embraced as ‘normal.’ Although so many characters in ‘Circe’ denounce Bloom’s perversity, they reveal their own sexual fantasies. In a scene of hanging the Croppy Boy, a kind of metamorphosis of Robert Emmet, a radical nationalist, those ladies in the high society of England run to sob the sperm emitted by the hanged man. By scattering pornographic novels and erotics pictures throughout

*Ulysses*, Joyce attempts to show his awareness of the transition of sexual discourses and criticizes the repressive hypothesis of the period in which he lives.

Joyce deploys obscene materials as a Trojan horse to attack the Victorian idealization of prudence and reticence about sexuality. He must have been awar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high culture of classicism and popular culture of pornography will be blurred. So his inclusion of obscene materials in *Ulysses* is his aesthetic strategy.

■ Key words: Joyce, Popular Culture, Obscenity, Pornography, Censorship, Modernism

(조이스, 대중문화, 음란성, 포르노그래피, 검열, 모더니즘)

논문접수: 2011년 5월 18일

논문심사: 2011년 6월 18일

게재확정: 2011년 6월 24일